

전환기 양록산업을 진단한다.



조용환
(축산신문편집국장)

태평양을 건너 물밀듯이 밀려오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으로 양록업도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특히 녹용·녹각수입량이 매년 늘고 6개월 후 녹육도 수입자유화돼 국내 양록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양록인의 심적·경영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더우기 양록이 엄연히 축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치축종으로 오인돼 제도적·행정적 지원책이 뒤따르지 않고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위층 행정관료의 새로운 인식전환과 양록인의 단합된 힘배양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40년전 만주록 꽃사슴 몇마리로 시작된 한국양록은 50년대 중반 레드디어·엘크등 중·대형사슴 3천 6백여두 도입으로 증식됐다.

이제는 4천 5백여 농가에서 9만여두의 사슴을 사육할만치 양적 성장을 하면서 축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뉴질랜드·소련등 선진 양록국에 비하면 토지자원부족, 양록정책부재 등의 여러가지 제반여건으로 인해 그 규모와 사양관리 기술이 다소 미흡하고 열악한게 사실이다.

일부 양록인은 한국 양록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뒤질게없다고 자위하나 녹용·녹육생산이 선진양록국이 훨씬 앞선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지난 87년말부터 한국에 대해 수입자유화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그 강도를 달리해 GATT에 제소하느니 수퍼 301도를 발동한다면서 갖은 으름장을 넣고 있다.

자유화 품목속에는 우리 축산농가가 오랫동안 가격하락으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온 쇠고기와 정착단계에도 접어들지 않은 녹육이 포함 국가적으로나 농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세계각국은 상호 수출전쟁속에서 살고 있다. 수출입 자유화의 비율이 어차피 높아지는 현실속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를 피해 나갈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기반이 영세한 우리로서는 이와같이 닥쳐오는 상황에 어떻게 대체해야 옳은지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거세지자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수출산업의 비중으로보나 앞날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일부 농업쪽의 희생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며 정책을 다뤄갈려는 알팍한 판단을 하는 자도 적지않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산품수출을 강력히 펼쳐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그동안 막대한 금융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또 공산품수출 주도정책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감수해야했던 농업분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는 사실을 정부 고위당국자는 깊이 인식,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모쪼록 정부는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식량산업은 제2의 무기화가 될 수 있어 안보적 차원에서 보호·육성하고 있다.

특히 적과 대처하는 상황인 우리로서 식량산업은 자급자족토록 해야된다.

만약 이를 소홀히해 우리나라가 머지않은 장래에 농축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했을때 우리가 맛봐야할 당혹감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최근 행정당국은 축산물수입 확대조치등에 의거, 소득대체작목 전환과 양육농가 보호를 빌미로 대형사슴 도입을 시도, 연구기관에서 현지적응시험을 거쳐 희망농가에 분양해 주기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몇년전 소값안정을 빌미로 쇠고기·생우를 무절제하게 수입 이를 분양받은 영농후계자 대다수는 소값과동으로 정든 고향을 등지거나 빗더미에 올라 앉아있다. 왜 이들의 어려움을 잊고 실상을 저버리려 하는가.

일핏보면 근친교배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혈액갱신용으로 다두 종족도입이 필연적이며 이 숫자는 국내 양육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당국자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지난 88년 쇠고기쿼터 1만4천여톤 수입재개로 국내 소사육농가와 두수는 30~40%나 감소했다.

따라서 몇백두의 사슴도입은 국내 사슴가격을 단시일내에 폭락시켜 기존 양육인은 물론 분

양을 희망받는 농가는 머지않아 불익을 당하고 말일이다.

사슴은 시장경매를 못하는 특수성 때문에 성록매매와 자육분양등 유통문제가 목장에서 직거래되는 관계로 일부 중간상인은 이를 교묘히 이용중이다.

금년초에도 일부 양육인이 실거래가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슴가격을 조작 유인물로 양육인과 양육을 희망하는 농가에 배포해 사슴가격을 적정선보다 폭등시켰다는 우려의 지적도 크다.

이는 전 양육인에게 피해를 주고 초보 양육인의 불안감도 조장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양육협회는 이의 개선과 공정거래를 위해 금명간 일정수준 양육농가를 사슴분양장으로 활용, 초보분양 희망자의 분양편의를 제공하고 양육농가의 사슴거래를 원활히할 방침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육협회가 최근 조사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현사슴사육두수 증감비율대로라면 5년후 국내 자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반추가축인 한육우·우유가격은 청초기를 앞두고 특히 사슴가격은 이때가 절각기이므로 다소 오른다.

이를 감안치않고 사슴값이 너무 올라있고 대체작목이 없다해서 선대책도 마련치않고 무조건 사슴을 수입할 경우 기존 양육인은 도산하고 말 일이다. 분양 희망농가도 과거 소입식으로 피해를 당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보겠다.

따라서 전국의 양육인은 모두 전환기 양육업의 새방향 정립을 위해 보다 결속을 굳게 다

져 나가야 하겠다.

우선 사단법인체인 한국양록협회를 통해 사슴사육·영양관리와 기술개발은 물론 유통구조·경영개선·종특개량과 불공정 과세를 사정토록하는데 양록인은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우리 국민들사이 사실 녹용은 인삼과 더불어 영약으로 취급되어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직도 사슴하면 으레히 귀족동물로 보고 돈많은 부자가 관상용으로나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어쨌든 부업형태에서 전업귀로에 선 한국양록업은 그 역사가 일천하해 사슴 사육기술이 낙후되었고 시장출하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사슴매매상 품종·연령과 가격마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사슴부산물중 녹용·녹혈만이 상품화차치로 활용될뿐 녹미·녹육·녹신·녹피등 타부산물은 아직 상품화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기술개발과 유통구조개선은 시급히 선결돼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양질의 조사료 채취가 용이하고 공해가 적은 산간지역으로 목장을 이전토록하고 사슴방목장 시설규제도 완화토록 정부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책은 시급하다.

이 모든 문제가 단시일내에 모두 해결되리라 기대치는 않으나 전국의 양록인이 스스로 권익을 되찾고 보호를 위해선 압력단체인 한국양록협회를 주축으로 당면문제 해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그리 힘들지만도 않겠다.

양록협회는 지난해 신규회원을 4 백 50 여명이나 가입시키는등 협회 업무가 매년 신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회원은 전국 양록인대비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시, 회원화를 보다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회 미결성 지역은 조속한

시일내에 결성, 하부조직 관리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

아울러 양록정책 건의를 위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열고 국제적 양록세미나에도 한국대표를 파견, 국제 양록기술과 정보수입에 가일층 분발해야 바람직 하겠다.

또한 국산녹용성분과 효능·독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관련연구기관에 의뢰해 품질이 수입 녹용보다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키고 전국민에게 널리 통보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간 약재상이나 일부 한의사들은 마진폭이 큰 수입녹용보다 효능이 좋다고 악선전 폭리를 취하고 국내양록인의 권익을 침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쨌든 한국양록협회는 양록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문제점은 과감히 표출, 개선시켜 나가야 하며 양록인은 양록협회로 뭉쳐야만 한다.*

★ 투 고 환 영 ★

본 회보는 양록업계의 유일한 회보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보가 되어야 합니다.

회보에 기재할 회원 임의 양록에 대한제언, 양록수기, 체험담, 양록 관계 시, 동요, 산문, 동정. (신상문제, 목장이동, 확장). 사슴 및 녹용의 사진 등 투고를 환영 합니다.